

고조선수도성고증을 위한 지리적연구

리 호

고조선의 수도성을 찾아내는것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발전하여온 우리 나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특히 평양의 유구한 도시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단군릉이 발굴되고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였다는것이 새롭게 밝혀진 후 1990년대 전반기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고조선유적유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집중적인 고고학적조사발굴이 진행되었으나 수도성유적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평양지방의 자연 및 사회적조건의 력사지리적변천과정과 성곽유적들의 지리적분포특성을 종합분석하여 고조선수도성유적고증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지리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랜 옛 문헌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 21년(247년)조에는 《평양이라는 곳은 선인 왕검이 살던곳》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평양에 도읍하였다.》는것과 《평양은 고려의 서경》이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 지리지의 평양부조에는 평양은 단군이 도읍하여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곳인데 고구려는 장수왕 15년(427년)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고려는 초기에 이곳을 서경이라고 하다가 경효왕(공민왕) 18년(1369년)이후에 평양부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봉건왕조실록 지리지를 비롯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헌들과 당나라 《통전》을 비롯한 이웃나라 옛 문헌들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기록들을 볼수 있다.

이러한 옛 문헌기록자료들은 고조선의 수도성을 고구려와 고려시기의 평양령역안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427년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을 때 도시지역은 대성산, 교방산, 대동강, 청암산으로 둘러싸인 오늘의 대성구역 동부일대였으며 수도의 중심부를 평양성(장안성)으로 옮긴 586년이후 고구려 말기와 고려 및 조선봉건왕조시기 도시지역은 모란봉, 대동강, 보통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의 중구역과 평천구역일대였다.

이상의 사실들은 고조선의 수도성유적고증대상지를 대동강 중, 하류류역의 넓은 지역이 아니라 앞에서 본 옛 평양중심부지역으로 좁혀야 하며 새로운 성곽유적을 찾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성곽유적들가운데서 고증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옛 평양중심부지역에는 교방산성, 청호동토성, 청암동토성, 대성산성, 안학궁성, 락랑토성, 서산성, 그리고 평양성(장안성)의 북성, 내성, 중성, 외성과 같은 11개의 성곽유적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고조선이후시기의것들로 알려져있고 고조선성곽유적으로 알려진것은 없다.

평양은 력사가 깊은 큰 도시였던것으로 하여 옛 문헌들에 평양의 성곽유적들이 적지않게 기록되어있고 20세기초부터 평양일대유적들에 대한 조사발굴이 진행되었으므로 력대로 평양에 축성되었던 성곽들은 다 알려졌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옛 평양중심부지역에서 새로운 성곽유적을 찾는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곽유적들가운데서 년대가 잘못 평

가된것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평양중심부지역에서 고조선성곽유적을 고증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력사적으로 선행시대의 성곽들이 후세에 증축보수되어 리용된 사실들이 적지 않았는데 평양에서도 그러한 실례들이 있다. 고려는 고구려수도성이었던 평양성을 복구하여 리용하였고 그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리용되었다.[1]

그러므로 고구려도 고조선시기 성곽을 증축보수하여 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오늘에 와서 고구려유적으로 잘못 판정되었을수 있다는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력사학계에서 18세기 중엽부터 단군릉이 발굴된 1990년대초까지 고조선의 수도는 룡동이였으며 평양의 도시발전은 고구려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이 정설로 되어있었기때문에 지난 시기 평양의 성곽유적들에 대한 고고학적조사발굴에서 고조선시기의것들이 고구려유적으로 단정되었을 가능성이 더욱더 큰것이다.

그러므로 단군릉발굴이후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새롭게 밝혀진 조건에서 평양중심부지역의 성곽유적들을 다시 발굴조사하는것은 고조선수도성유적을 찾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의 하나로 된다.

평양중심부지역의 성곽유적들가운데서 고조선수도성유적을 고증하자면 그 대상을 과학적으로 선정하는것이 중요하다.

고대에는 산성이 없었고 대체로 강기슭에 성곽을 축성하였기때문에 평양의 중심부지역의 11개 성곽유적가운데서 대성산성, 고방산성, 서산성 등 3개의 산성은 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학궁성유적은 대동강기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있을뿐아니라 대성산성과 함께 이미 여러차례 구체적으로 발굴조사되어 고구려시기것으로 확증되었기때문에 역시 고증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7개의 성곽유적은 대동강기슭에 있는데 대동강기슭의 자연지리적조건의 력사적변화특성과 력사적시기들의 성곽유적위치특성을 대비분석하면 그것들이 건설될수 있었던 시기를 판정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대동강류역의 자연지리적조건을 크게 변화시킨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급격한 지각운동은 없었으나 강기슭의 자연지리적조건을 점차 변화시킨 지각의 서서한 룡기운동은 계속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각의 룡기속도는 매우 미미할지라도 오랜 기간 축적되면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자연요소들의 특성을 적지 않게 변화시키며 사람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옛 시기 궁전이나 성곽과 같은 유적들이 바다밑에서 발견되고 포구나 선박잔해와 같은 유적유물이 강이나 바다가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언덕에서 발견되는 사실들은 모두 지각의 서서한 침강 및 룡기운동과 관련되어있다.

대동강류역은 제3기말부터 룡기하여왔고 제4기 하갱신세말부터 서쪽보다 동쪽에서보다 빨리 룡기하고있다는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증된 사실이다.[2, 3]

륙지가 높아지는데 따라 바다물면과 대동강물면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므로 옛 시기 일수록 대동강류역의 해발높이가 낮았고 대동강수면은 지금보다 높은 곳에 있었을것이다.

이러한 자연지리적조건의 변화에 기초하면 고조선 건국초시기부터 오늘까지 5천년간의 룡기량은 평양지방의 서부에서는 6m, 중부에서는 7m, 동부에서는 8m정도로 추산되며

현재 그만한 해발높이에 있는 지면들의 5천년전 해발높이는 0m수준이었던것으로 된다. 여기에 조선서해에서 밀물때 대동강물높이상승과 장마철에 평양중심부 대동강물높이가 해발 10m정도 높아지는것을 고려하면 5천년전 평양의 대동강물높이는 현재의 해발 20m에 이르는 곳에 미치었던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옛 시기일수록 전반적 해발높이가 지금보다 낮았고 강폭이 넓었으며 울창하였던 산림의 류출조절능력이 큰것으로 하여 대동강의 최고물높이는 그보다 높지 않았다.

옛 시기 대동강큰물높이는 해당 시기 력사유적들의 최저해발높이분포한계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

평양에서 발굴된 고조선시기의 력사유적들의 최저해발높이는 서부에서 13m, 동부에서는 14m정도이다. 즉 평양중심부지역의 해발 13m아래지역에는 고조선시기의 유적유물들이 발견된것이 없다. 그러나 고구려,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등 고조선이후시기의 유적유물들은 적지 않게 발견되였다.

이것은 지각의 퉁기로 대동강수역이 점차 줄어들고 수위가 낮아지는데 따라 사람들이 강기슭가까이로 접근하면서 살아온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해발 13m아래지역은 고조선말기까지 대동강수역으로서 거기에 있는 성곽유적들은 고조선수도성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동강기슭의 성곽유적들중에서 평양성의 외성, 중성, 내성, 북성들과 락랑토성, 청호동토성유적들이 바로 그러한 대상에 속한다.

평양성 북성의 동쪽성벽, 락랑토성과 청호동토성유적들은 해발 12m정도, 평양성 외성과 중성의 성벽들의 대부분구간과 내성의 동쪽과 남쪽의 일부 성벽구간은 해발 10m안팎인 곳에 있으므로 그것들은 고조선시기 유적들로 볼수 없다.(그림 1)

오직 해발 16m이상되는 지역에 있는 청암동토성유적만이 고조선시기부터 있을수 있었던 성곽유적으로 된다.

청암동토성이 위치한 곳은 제4기 현신세이전(1만년이전)시기에 형성된 대동강 제2단구에 해당되는 해발 16~30m의 강기슭언덕지역으로서 5천년전에도 대동강의 큰물높이보다 높았기때문에 성곽건설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지역은 고대성곽건설의 모든 조건을 조화롭게 갖추고있다.

성벽유적의 동쪽과 북쪽, 서쪽은 주암산(해발 60m)과 해발 30m남짓한 높이를 가진 청암산릉선들이 잇달려있고 남쪽은 대동강기슭의 높지 않은 절벽 또는 급경사로 되어있으며 산릉선들과 대동강으로 둘러싸인 넓은 지역은 평탄하면서도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있어 매우 아늑한 감을 준다.(그림 2)

이렇게 성벽유적의 안쪽은 완만하고 바깥쪽은 급경사지 또는 강기슭절벽이므로 성벽의 방어력을 높일수 있고 넓고 평탄한 성안에는 여러가지 많은 건축시설들을 배치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대동강기슭의 절벽은 조선서해의 조수나 계절에 따르는 대동강의 심한 물높이변동에 의한 수역변화를 막아주므로 강을 리용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우리 나라 고대성곽유적들가운데서 이처럼 훌륭한 조건을 가진것은 없다.

청암동토성유적을 고조선시기수도성유적으로 볼수 있는 다른 근거들도 있는데 그것은 서해갑문건설이전시기 대동강의 룡라도 웃쪽 청암동토성유적앞에 썰물때마다 나타나 군하던 여울을 고조선수도성이었던 왕검성과 뜻과 음이 잘 통하는 《왕성탄》[4]이라고 불

러온것과 조선봉건왕조시기 청암동토성유적안에 《황궁기지비》를 세운 사실[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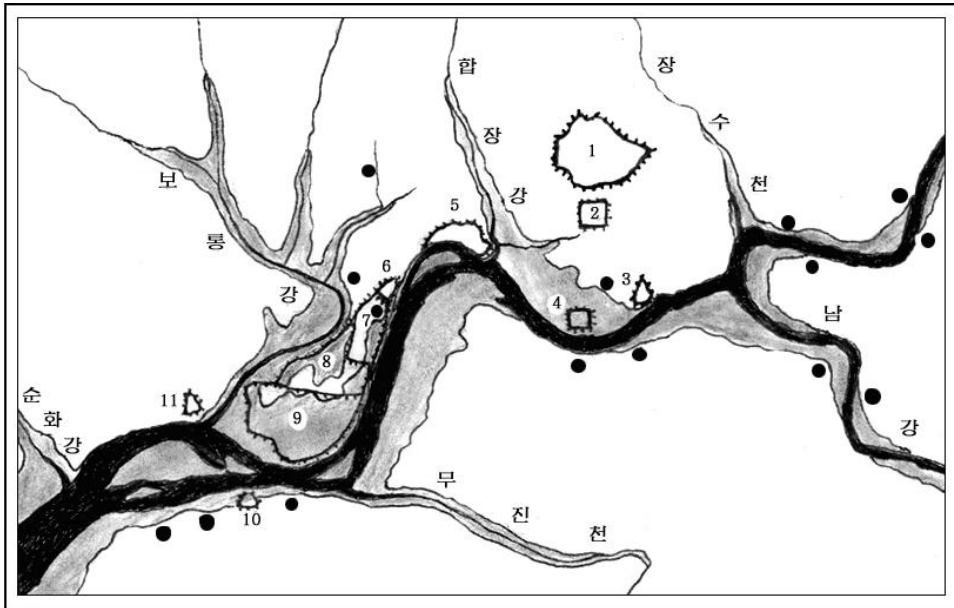


그림 1. 3천년이전시기 대동강수역과 성곽유적들의 위치

1-대성산성, 2-안학궁성, 3-고방산성, 4-청호동토성, 5-청암동토성, 6-평양성북성, 7-평양성내성,
8-평양성중성, 9-평양성외성, 10-락랑토성, 11-서산성 ●-고조선부락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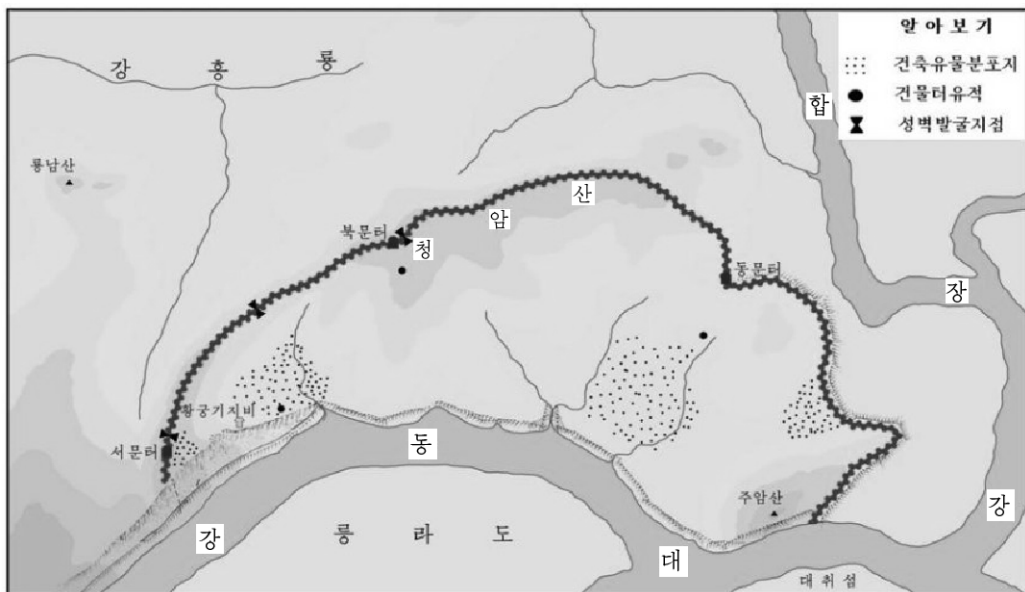


그림 2. 청암동토성유적분포도

그리고 청암동토성유적은 평양일대 대동강기슭의 곳곳에 분포되어있는 고조선시기부락터유적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으며 고조선수도 외곽방어체계를 이루고있던것들로 확증된 고조선성곽유적들도 청암동토성을 중심으로 사방 100리안팎의 교통요충지들에 분포되어있다.

또한 우리 나라 여러곳에서 발견된 고조선시기의 성곽유적들의 면적은 대체로 0.3km^2 미만이지만 청암동토성은 1.6km^2 로서 그것들의 5배이상이며 그것은 당시 세계고대 국가들의 수도성들가운데서도 큰 부류에 속한다.

력사지리적전제에 기초하여 1995년말부터 2008년초까지 청암동토성의 성벽유적과 성안의 여러 지점들에 대한 고고학적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 토성이 3개의 층으로 되어있다는것과 제일 아래층성벽은 4천년전 단군조선시기에 축성된 수도성성벽이었고 그 윗층성벽들은 고구려시기에 증축된것이라는것이 확증되었다.

맺 는 말

력사유적발굴에서 지리적연구방법을 적용하면 력사유적고증의 정확성을 높일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58, 5, 149, 주체101(2012).
- [2] 최희림; 고구려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1~33, 1978.
- [3] 함영렬; 지리과학, 1, 7, 1990.
- [4] 弦間孝三 等; 朝鮮大誌, 衛生彙報社, 13, 1934.
- [5] 關野貞; 朝鮮の建筑と藝術, 岩波書店, 369, 1942.

주체108(2019)년 1월 5일 원고접수

Geographical Research for the Historical Investigation of Capital Castle of Ancient Joson

Ri Ho

The paper described that I studied a historically correct evidence for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capital castle of Ancient Joson by applying a historical and geographical method.

Key words: Ancient Joson, capital castle, relics, upheaval